

‘프랑스의 봄’, 전주서 만나다

17~18일 ‘전주세계문화주간’ 개최... 사업 10주년 맞아 봄·여름·가을 문화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공공 외교사업인 ‘전주세계문화주간’이 올해 10주년을 맞아 기존 1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봄과 여름, 가을 총 3회에 걸쳐 시즌별 테마가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시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전주정원문화센터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전주세계문화주간-프랑스편(봄)’을 개최한다.

시는 지난 2016년 프랑스 문화주간을 시작으로 해마다 한 국가를 선정해 해당 국가의 주한 대사관 및 문화원과 공동으로 각 나라별 고유한 문화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등 독자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다.

올해는 세계문화주간 사업 추진 10주년을 기념해 기존 단발성 행사를 넘어 봄(정원)과 여

름(도시), 가을 총 3회에 걸쳐 시즌별 테마가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다채로운 국제문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첫 번째인 이번 봄 행사에서는 전주정원문화센터와 중산공원 일대에 실내 포토존과 프랑스 테마 정원 등 특별한 공간이 조성되고, 다양한 체험행사 등이 마련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국립조경학교 출신 서정완 작가가 들려주는 ‘프랑스 정원의 역사와 철학’ 특강과 향기 주머니 만들기, 압화 액자 제작 등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정원 프로그램 참여는 전주정원문화센터 누리집(gardenc.jjeff.kr)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서는 영화 ‘바탕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이 총 2회(17일 오후 7시 30분, 18일 오후 5시)에 걸쳐 특별 상영된다. 티켓은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운동목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전주세계문화주간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우리 시민들이 전주 안에서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공공 외교의 핵심 플랫폼”이라며 “국가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준비한 이번 프랑스편을 통해 전주만의 국제적 문화 깊이를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년 동안 전주세계문화주간을 통해 프랑스와 미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전시, 공연, 미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며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지평을 넓혀왔다.

/권희성 기자



전통 벼루 공예기술을 계승해 온 고대봉 장인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장수녹반석벼루장’ 보유자로 신규 인정됐다.

전통 벼루 공예기술 계승 공로

장수군, 고대봉 장인 도 무형유산 ‘장수녹반석벼루장’ 보유자 신규 인정

장수군은 전통 벼루 공예기술을 계승해 온 고대봉 장인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장수녹반석벼루장’ 보유자로 신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정은 장수 녹반석 벼루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공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지역 전통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장수녹반석 벼루는 고품질 석재 가운데 녹반석을 이용해 벼루를 제작하는 전통 기술이다.

해당 종목은 지난해 5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고시됐으며, 국가유산

포탈에도 등재돼 전통 공예로서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보유자 신규 인정은 종목 지정에 이어 지난달 6일 전승 주체까지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형유산 문화체육과장은 “고대봉 보유자의 신규 인정은 장수 녹반석 벼루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이를 계기로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시가 개최한 ‘2026 봄꽃이 피어나는 요천 음악회’가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봄꽃이 피어나는 요천 음악회’ 성료

남원시, 공연·체험·먹거리 어우러진 참여형 행사 ‘호응’

남원시가 개최한 ‘2026 봄꽃이 피어나는 요천 음악회’가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축제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20여 일 앞으로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이번 음악회는 공연·체험·먹거리가 어우러진 참여형 행사로 진행, 특히 개막식 등 관례적인 의전 행사를 과감히 생략하고 공연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체류시간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대에서는 초청 가수 공연과 남원시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비롯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행운의 96 노래방’, 가족 단위 체험 콘텐츠 등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또한 막걸리

판매와 먹거리 공간 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행사장의 활기를 더하고 현장 이용률을 높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제96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불입’ 프로그램으로 기획, 행사장 곳곳에 춘향제 홍보 요소를 반영하고 ‘96’이라는 테마 콘텐트를 적극 활용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춘향제를 인지하고 축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한편,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 강화, 관광객 편의 시설 확충 등 축제 준비 전반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서 ‘KBS 국악한마당’ 열린다

고창군이 KBS한국방송과 함께 국악한마당 공연을 오는 11일 오후 3시에 고창읍성 특설무대에서 진행한다. (우천시 고창문화의전당, 무료관람)

국악한마당은 국내 최정상 국악인들의 전통 판소리, 민요, 연희 등 다양한 국악 레퍼토리를 열린 콘서트 형식으로 담아낸다.

공연은 구성진 소리 한바탕을 보여줄 박애리, 남상일 명창과 국악과 트로트의 만남 가수 양지은, 민혜성 명창과 프랑스의 소리꾼 마로 포르, 사인송화영교방춤 전승 보존회, 전통예술 아리랑이 다양한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녹화 방송은 오는 5월 2일 낮 12시10분부터 KBS 1TV에서 전국 방송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대표창극 ‘춘향’ 24~26일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은 2026년 대표창극 ‘춘향’을 기획·제작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예원당 무대에서 24일 오후 7시, 25일과 26일은 오후 3시에 진행한다.

춘향은 판소리 다섯 바탕을 대표하고 남원의 상징으로 자리한 ‘춘향가’를 바탕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국립민속국악원의 대표 창극이며, 이별·그리움·신연맞이·수난·재회·어사출도·다시 사랑가의 흐름으로 압축해, 익숙한 줄거리 재현보다 춘향의 내면과 감정선에 집중한 작품으로, 사랑과 이별, 기다림과 재회의 정서를 섬세하게 풀어낸다.

공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배식식 교수가 대본을 맡고,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한승식 교수가 작곡을, 김 정 연출이 무대화를 맡아 완성도를 높인다. 설명적인 드라마 전개



를 덜어내고 음악과 소리로 감정을 끌고 가는 구성으로, 한 편의 영화처럼 몰입해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 전화(063-620-2329)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